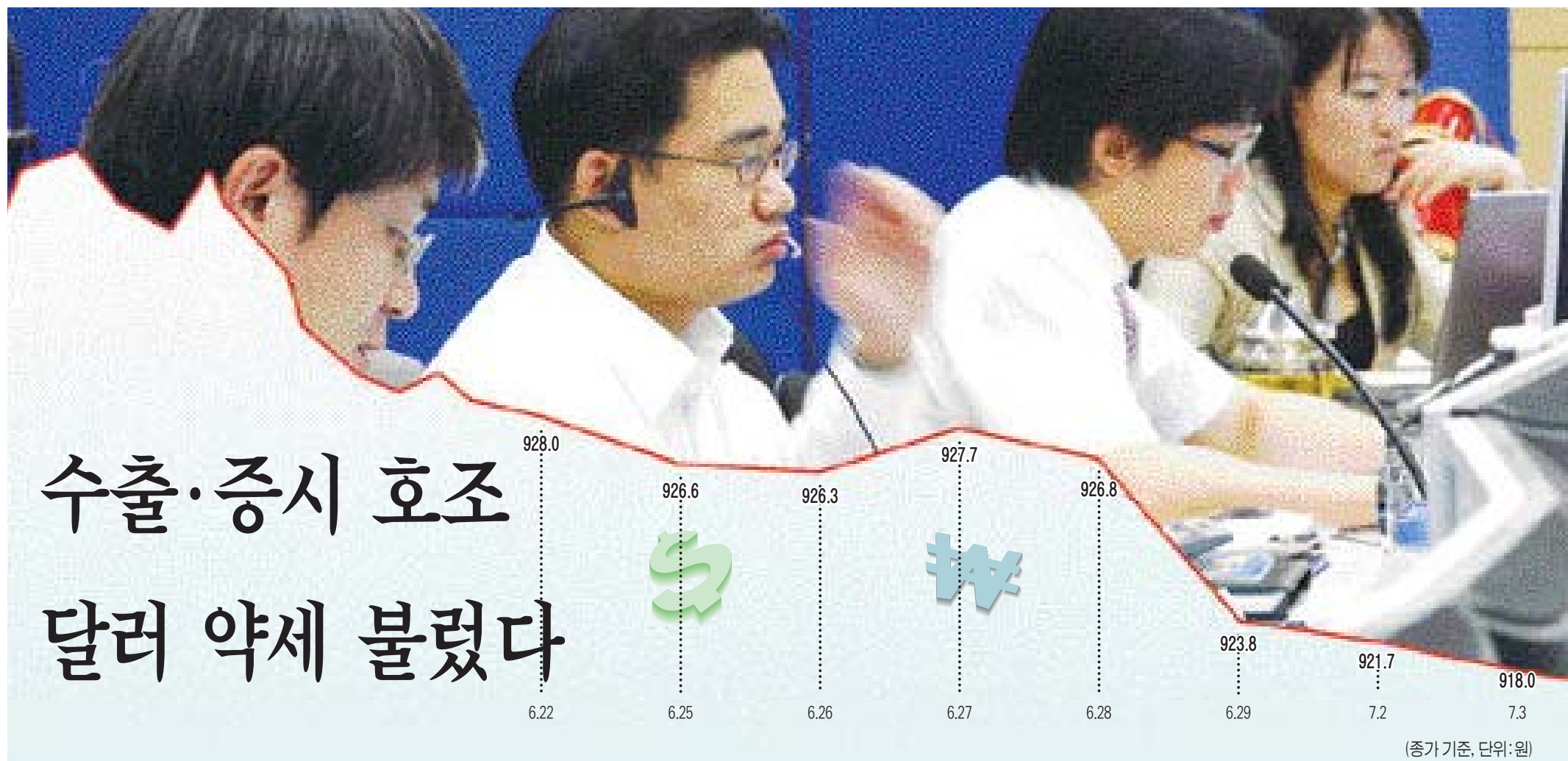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 910원대 추락

### ■ 원인과 대책



### 수출·증시 호조 달러 약세 불렀다

### 해외투자 확대로 수급 불균형 해소를 2분기 통화절상 공조대책 세워야

원·달러 환율이 7개월만에 920원선 아래로 떨어졌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수출과 증시 호조 등 국내 요인과 아시아 통화 절상 압력 등 해외 요인이 어우러지고 있어 900원대 붕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 확대를 통한 수급 불균형 해소 노력과 함께 과도한 통화 절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간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율 7개월만에 910원대 하락>=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3.70원 떨어진 918.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간 9.70원 급락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지난해 12월7일의 913.80원 이후 7개월 만에 910원대 증가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4월 이후 석달간 920~940원 사이의 박스권에 머물렀지만 최근 수출과 주가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하락압력을 받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12억달러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7억8천400만달러, 현대미포조선 5억9천400만달러 등 조선업체의 대규모 주주소식이 잇따라 전해진 데 이어 지난달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발표가 나오면서 달러화 매도 심리가 심화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1천800선까지 치솟은 점도 원화 강세에 일조하고 있다.

<900원대 위협 전망, 국가간 공조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외환시장 수급구조와 심리에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율이 전지적인 913원을 밑돌 경우 연내 800원대 진입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신한은행 홍승모 과장은 “최근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유도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매물 압력으로 지시적인 925원이 밀리면서 하락 기대심리가 강화됐다”며 “913원 아래로 떨어지면 옵션을 이용한 헤지 물량이 많은 910원과 900원, 880원 등이 차례로 붕괴되면서 급락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외국인 주식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 달러화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환율 하락세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지만 큰 폭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수급 균형 유도는 물론 통화 절상이 심한 아시아 국가들과 연계대책이 절실하다”며 “일본이 미국의 묵인하에 저금리라는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환율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국 신용등급 상향 절차 착수

무디스 2~3개월내 조정 재정부에는 3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 상향에 필요한 최종 요건검토 작업에 들어갔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통상 절차 착수 후 2~3개월 안에 실제 등급조정을 실시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무디스는 이번 상향절차 착수의 주요 요인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성장률 제고 노력과 건전재정구조 유지 등 경제관리면담의 개선, 2·13합의 이행절차 재개 등 북핵관련 상황 진전을 들었다. 무디스는 또 향후 등급 상향 여부 결정의 주요 평가요소로 대선 등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전 재정구조가 유지될지 여부와 북한 비핵화 과정의 차질없는 이행여부 등을 제시했다.

### 1ha 이하 농업진흥지역 시·도지사 재량 해제 가능

앞으로 1ha(1만㎡)이하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또 농업인들은 별도의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농지 안에 축사를 지을 수 있다. 농림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시설 입지 등을 위해 농지 전용이 필요한 경우 1ha 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재량껏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풀어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었다.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일도 자유로워졌다. 현재는 농지내 축사를 지으려면 농지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는 등 비합리적 제한이 있었지만, 4월부터는 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도 축사 설치가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혁신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에 대한 농지보전금 감면 범위도 넓어졌다.

### LG·금호아시아나·한화·두산 출종제 대상 기업서 제외

출종제 대상기업 제외. 출종제 대상기업의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확산되면서 출종제 적용대상 기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출종제 적용대상 기업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집단내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4일부터 출종제 적용대상이 11개 집단 264개사에서 7개 집단 27개사로 줄어들게 된다. 재계 그룹중에서는 LG와 금호아시아나, 한화, 두산그룹 등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이 최근 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을 갖추 최근 출종제

### 코스피 2주만에 1,800선 탈환 “2012년 3,000까지 간다”

#### 유망업종 건설·금융·운수창고 등 내수주 쏠림

3일 코스피지수가 1,800선을 재탈환한 가운데 국내 주가가 올해 2,000선을 돌파한 뒤, 2012년에는 주가지수 3,000선대가 열릴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2009년에는 평균 13.8%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2,300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가지수 2,000, 시가총액 1천조원, 소득 2만달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것. 2009년에도 평균 17% 상승하면서 코스닥지수도 12.10포인트(1.54%) 상승한 796.71로 거래를 마쳤다. 이런 가운데 김영의 대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부사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자본시장 포럼에서 2009년까지 국내증시의 ‘잠밋질 미래’에 대해 관심을 끌었다. 김 부사장은 올해 3분기말이나 4분기 초에 주가지수가 2000을 돌파한 뒤 2012년에는 3,000선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에는 평균 13.8%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2,300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가지수 2,000, 시가총액 1천조원, 소득 2만달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것. 2009년에도 평균 17% 상승하면서 코스닥지수도 12.10포인트(1.54%) 상승한 796.71로 거래를 마쳤다. 이런 가운데 김영의 대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부사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자본시장 포럼에서 2009년까지 국내증시의 ‘잠밋질 미래’에 대해 관심을 끌었다. 김 부사장은 장기 주가상승의 배경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식투

### 김윤규 前현대부회장 나홀로 대북사업 개시



2005년 10월 개인비리 혐의로 현대를 떠났던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이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이 대북사업을 위해 작년에 설립한 (주)아전글로벌코퍼레이션(이하 아전글로벌)은 지난달 21일 북측으로부터 동해선 육로를 통해 철강상어 531kg을 반입하는 가하면 개성공단에도 진출했다. 철강상이 반입은 아전글로벌의 첫 사업으로, 김 전 부회장의 최측근이자 현재 아전글로벌의 부사장이자 동해선 현 현대아산 상무가 지난달 18~20일 금강산을 방문해 반입 문제를 최종 논의했다. 김 전 부회장은 오는 5월 퇴임 이후 처음으로 금강산을 방문, 북측과 추가 반

입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측과 트러블은 수산물 사업을 담당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산하 개성총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회장은 현재 북측으로부터 모래 반입 사업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김 전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직접 개성을 찾았고 조만간 육전상무가 추가 협의를 위해 개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회장이나 육전 상무가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교역사업 실무진 외에 북측 고위당국자를 만났거나 만날 예정은 현재로서는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호남농림(주)	(총무부/영업부) 정규직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5	062-419-8171
부흥시스템(주)	본사 토크부 기술직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7/06	062-382-9428
(주)대창 E&T	(에너지사업부) 관리직 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6	062-383-6831
남해종합개발	부속실 여직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6	062-220-2514
제일물상	인터넷 오픈마켓 상품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6	062-371-6336
(주)전국종합상조	사무관리/총무/경리/회계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7	062-352-4424
(주)글로벌인스퍼피코리아	글로벌리인스퍼피코리아 비리스타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07	02-3443-1733
두메푸드시스템(주)	총무부 사무직사원	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7/07	062-571-6000
풍천네이처기계	[신입/경력] 매장 관리 및 판매직 (기술사 제공)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7/09	02-564-8212
프리엠FC	재직자 국지비밀 신청서 접수 및 관리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10	062-225-8901
(주)수호시스템	이마트 신규OPEN 봉사점 보안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0	033-749-1112
(주)나오미식품	식품공정 관리사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7/14	061-332-2166
옴계	선반 기능 신입 및 경력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14	062-720-7783
(주)인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고객센터 정규직 상담사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16	062-601-7213

(광주직업포럼 512-6210 제공)

### 2009년부터 석면사용 전면 금지

환경부와 노동부·교육부·국방부·건교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석면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1970~1980년대 석면이 집중적으로 수입·사용돼 현재 건축물의 90% 이상이 석면이 들어있으며 석면노출로 인한 질병의 잠복기가 10~30년임을 감안할 때 향후 석면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석면함양량이 0.1%를 초과한 제품의 제조·사용·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단, 석면 개스킷(파이프 등의 접합부를 잇는 패킹)과 산업용 석면 마찰제품의 사용은 2009년부터 금지된다.



### 동화약품 5억달러 기술 수출 美에 골다공증치료제 이전

동화약품(대표 윤길준)이 국내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5억1천100만달러의 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동화약품은 3일 자사가 개발해 임상 시험중인 골다공증 치료제 ‘DW1350 및 그 후속물질’에 대한 특허와 기술을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인 ‘P&G’의 자회사 ‘P&G 파마슈티컬스(P&GP)’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동화약품은 계약금을 포함한 5억1천100만달러에 달하는 기술수출료(Milestone)와 상업적 매출에 따른 로열티 수입을 올리게 됐다. 이는 국내 신약관련 기술수출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는 계약사측의 설명이다. 동화약품은 이번 계약으로 아시아지역을 제외한 전세계의 ‘DW1350’ 개발 및 판권을 ‘P&GP’에 양도하는 대신 향후 기술수출료와 함께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상업적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받게 된다.